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를 위한 시론

이선영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국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조사 내용
- III. 국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조사 방법
- IV. 결론 및 제언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어교육 연구의 방향은 주제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국어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오래 형성되어온 것에 비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학령기 이전의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언어 치료와 같은 특수교육의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정작 학령기에 해당하는 일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국어교육학의 기초가 된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거나 발달 단계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하거나 적용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이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의

국어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도 참고해야 할 필수 자료가 된다.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학습자의 국어능력에 대한 정의와 논의의 범위가 국어교육 전반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대표성을 지닐 만큼 다양성과 균형성을 갖춘 학습자의 표본을 장기간에 걸쳐 구축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구한다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교육 관련 분야에서 대규모 교육 종단연구조사(교육개발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주관)가 설계되어 실시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종단 패널 조사(청소년 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주관)도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개별 학자들이나 연구자 그룹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를 계획하고 이를 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는 국어교육의 핵심 주제인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학습자의 국어능력이라는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적인 자료 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하나의 범박한 제안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국어교육의 각 영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다만 발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한 사례연구이며, 특정 시기 다른 학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방법의 비교에 의한 추론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질적인 종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과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기 때문에 횡단 연구에 비해 인과관계 설정을 할 때 시간적 순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자연적인 성숙에 따라 능력, 태도, 행위 면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어떻게 유형화되어 발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적어도 두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전망적 패널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횡단 분석, 종단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더욱 용이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종단 연구 방법은 학년에 따른 학습자의 일반적인 국어능력 발달을 살펴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지만 국어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 학업 및 정서·행동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학습자,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학습자에 주목하여 연구를 할 때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적인 악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단 연구 자료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집단별 성장과 발달을 건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II.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조사 내용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 조사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국어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도구들의 개발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본고의 주된 논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국어능력 발달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적인 조사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정리한다. 본고의 논의는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조사 내용을 설정하고 국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목록을 찾아내는 것이다.

1.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

학습자의 국어능력과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동일 시기에 몇 개 학년의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언어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측정 항목들을 설정하고 언어발달에 따른 학년별 혹은 학교급별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¹⁾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영역별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

영역	유형	방법	세부 내용	분석 항목
말하기 · 듣기	이야기 하기	질적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엽(2009,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1명의 서술자가 5년 동안 갈래별로 자유롭게 경험, 허구에 대해 산출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구성능력(에피소드의 수와 길이, 이야기 구조, 이야기 구성요소, 이야기 서사성) • 이야기의 표현능력(C-unit의 수, 문장 접속, 부가, 인과, 전환 관계 표현, 단문과 복문) • 이야기의 소통능력(연행, 초대표현, 이야기 속도, 소통 양상, 시작과 종결 방식)
	발표 하기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지은·권도하(2015) 초 1~6학년 43명 대상으로 P-FA 그림 이야기하기 검사, 담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속도, 총 비유창성 비율, 비유창성 형태별 비율 차이

1) 국어능력 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지만 본고에서는 연구 자료로 학교급별, 학년별 차이를 다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여러 기능이나 장르를 다룬 논문의 경우(민병곤(2004) 토론과 논설문; 이성영(2000) 설명문, 논설문, 생활문; 이재분외(2001)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별도 표시하지 않고 표의 순서상 처음 나오는 부분에 표시하였다.

읽기	발표하기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자성·김정미(2011) 초 4, 6학년, 중 2 60명 대상으로 산출한 토래 갈등에 대한 설명 답화, 경험 • 이재분 외(2001) 초 2, 4, 6학년 90명 대상으로 그림을 설명하여 발표하는 과제를 활용한 수집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T-unit 수, 전체 낱말 수, MLT-w, 절밀도, 종속절(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 발표 시간, 발표내용(문장수, 어절수, 수식어, 제목 관련성, 간결명료성, 자기 표현수, 정확성, 더듬은 횟수), 발표 태도(발음, 성량, 자신감, 청중고려)
	질문하기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선·장경희(2004) 초 1~6학년 대상으로 학년 당 남녀, 각 10명씩 총 120명의 아동을 2명씩을 짝지어 40분가량 대화하고 녹음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 기능(정보요구, 확인, 청자 참여 유도 청자 발화 수정, 간접 수행, 오락) • 질문 기능 수행 발달(정보 요구 기능, 확인 기능, 청자 참여 유도 기능)
	토론하기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병곤(2004) 초 6, 중 2, 고 1이 수행한 자유 토론 담화와 학생 작문 • 이선영(2011) 초, 중,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수집한 토론 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증 구조, 도식의 유형과 수, 논증 표지 분석 • 토론 절차에 대한 적응, 일관성 오류 유형별 양상, 입론 구성 능력, 반론 구성 능력
	설명적인 글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이은(2015) 초 3, 6학년 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정보텍스트 이해 검사 결과 • 김봉순(2000) 초 1~고 2학년 까지 11개 학년 대상으로 1212명의 이해력 검사 결과, 422명 표현력 검사 결과 • 김봉순(1999) 초 2~6학년을 대상으로 설명적인 글 이해력 검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상(내용-문자, 내용-복합, 구성), 독해(사실, 과정, 이유), 텍스트 인식(난도, 재미, 흥미, 재독서 의향, 기억, 그림재미, 그림 역할, 그림 흥미) • 텍스트 구조 이해력(핵심-상술, 비교 대조, 인과, 문제 해결) • 텍스트 구조 표현력(핵심-상술, 비교 대조, 인과, 문제 해결, 구조의 깊이, 구조의 체계성)
		종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훈(2011) 2년에 걸쳐 초 1, 2학년, 1, 2, 3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검사(단어 목록 읽기 과제, 음절 따라하기 과제, 글자 읽기 과제)
	이야기글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진애·김영태·이주연(2007) 초 2~5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이야기글 읽기 검사 결과 • 김애화·박성희·김주현(2010) 초 1, 3, 5학년 76명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설명문을 1분 동안 읽게 하고 녹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이해 정확도, 읽기 이해력(중심내용 파악, 참조 및 추론 능력), 언어검사(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검사, 구문의미이해검사) • 정확하게 읽은 어절 수, 어절 수준의 오류 유형(자기교정, 생략, 첨가, 반복, 대치) 텍스트 수준의 오류 유형

쓰기	일기 · 생활문	질적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희란(2015), 신문자·이희란(2017) 초 1~4학년까지 1명이 작성한 일기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수, 낱말 수, 복문 수, 연대기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아·남경완(2012, 2015) 초 1학년 학생 4명의 일기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태표현 • 제목의 특성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영(2000) 6개 학년을 대상으로 설명문, 논설문, 생활문 3종의 360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미의 일치, 지시어 사용, 텍스트 내 의미 완결성, 문단 인식, 구조 표지어 사용, 정의, 객관적 서술, 3단 구성 인식, 근거 수, 반증, 사건 수, 주제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혁(1998) 초 1학년 학생 1명이 1~5학년까지 작성한 1800일분의 일기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어휘량, 표준어와 방언, 맞춤법, 어휘 사용수준), 문장 차원(문구사능력, 복잡성, 표현특징), 텍스트 차원(응집성, 배경지식, 텍스트 표현전략, 표현 양상)
	설명적인 글	종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영(2016, 2017) 초 1학년 265명을 대상으로 3년간 쓰기 발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문식성 검사(받아쓰기, 읽기 능력, 태도, 쓰기 태도) • 양적 측면(글자, 어절, 의미단위, 문장, 철자 오류의 수) • 질적 측면((내용, 조직, 표현(설명) 인물, 사건, 배경, 표현(이야기글))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천택(2017) 초 4, 6학년이 쓴 글 128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관련(주제 표현, 참신성) • 조직 관련(문단 구분, 문단 구성) • 표기 표현(철자 띄어쓰기, 문장 부호 문법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은아(2010) 초 6~고 1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내용(주제 통일성, 풍부성, 참신성과 가치) • 글의 조직(체계성, 완결성, 단락 구분, 내용 전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삼형·주영미(2005) 초 3~고 2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1573편의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명확성, 뒷받침 내용, 논리적 조직, 구조 명확성, 표현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태호 외(2005) 초 1~6학년 각 30편씩 산출한 180편의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쓰기, 낱말쓰기, 문장쓰기, 문단쓰기
	논증적인 글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영진(2011) 초 3~중 3학년 까지 8개 학년 480명 대상 쓰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분명한 주제, 뒷받침 내용), 조직(논리적 조직, 글의 구조) • 표현(정확성)

쓰기	논증적인 글	횡단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현숙(2008) 초 6, 중 2, 고 1 총 200명 대상 논증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생성(주장의 명확성, 주장과 논거의 관련성, 반대입장 논박, 창의성) • 내용 조직(독자선택 전개, 구조, 통일성, 단락나누기) • 표현(어휘, 문장 표현, 맞춤법)
	서사적인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유경·김희수(2016) 초 5, 중 2, 고 2 총 60명 대상으로 수집한 내러티브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산출(추상명사, 메타인지 동사)빈도, 구문 복잡성(MLT-w, 절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경순(2009, 2010) 초 1~6학년 1754명, 중학생 700명이 작성한 서사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성향, 소재, 통일성, 독창성), 담론(구조, 주인공, 중심사건, 복잡성, 초점화, 구조화, 언어적 특성), 소통(이야기 속 독자, 소통 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인자(2004) 초 1, 3, 5학년, 중 1, 2, 3학년 남녀 학생 각 20명이 작성한 허구적 서사문 쓰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적 층위(사건성, 연속성, 연속 언어 특징) • 평가적 층위(통일성, 복합성, 플롯 패턴) • 소통적 층위(청자의 흥미 관심 고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리나(2001) 초 1, 3, 5학년, 중 1, 중 3, 고 2 245명을 대상으로 한 188편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갈래, 형식, 운율, 화자와 청자, 이미지, 상징, 함축성, 소재, 주제, 상상력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영역별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나 수능 평가가 주로 이해와 관련된 읽기 위주 평가로 이루어진 데 반해 학습자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말하기와 쓰기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산출한 담화나 텍스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는 대규모 평가로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기에 객관식을 활용한 읽기 평가가 적합하다고 여겨진 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달적 연구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학습자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기 영역은 이야기, 발표, 질문, 토론과 같은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말하기 유창성의 발달과 구성 능력, 표현 능력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유창성과 관련된 발달에 초점을 둔 반면 토

론과 같이 복잡한 사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담화는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읽기 영역은 설명과 같은 정보 텍스트의 경우 내용, 텍스트 구조의 발달을 지표로 발달 측면을 살폈다. 이야기 글은 이야기글의 속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어휘나 문법, 발음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제재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논증적인 글이나 비평적인 글에 대한 발달을 다룬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쓰기 영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었는데 생활문, 설명문, 논설문, 서사, 시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기초 문식성 단계에서부터 어휘, 문법, 내용, 조직, 표현의 발달 양상을 살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산출한 쓰기 자료는 어휘, 문법, 내용, 조직 등을 아우르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수집 및 분석 방향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영(2000: 27)이 기존의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음운, 어휘, 통사 발달에 한정되어있음을 지적한 이후로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어휘나 통사의 계량적 차원을 넘어 텍스트 수준에서 세부 영역별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이은희(2002: 388)에서 지적한 것처럼 능력을 지표화할 때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여 텍스트 유형별로 분석 항목을 세분화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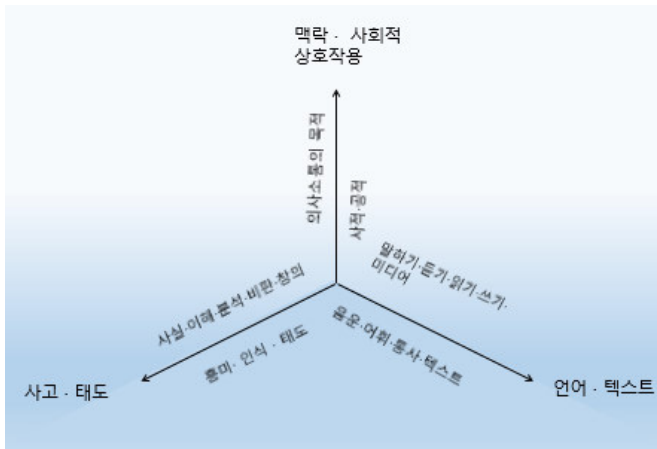
또한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발달 뿐 아니라 정서 및 태도에 대한 발달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윤준채, 2009; 오택환, 2009; 박영민·최숙기, 2009; 가은아, 2010; 장은섭, 2014).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필자들의 쓰기 태도, 쓰기 효능감, 쓰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거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쓰기 인식이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는데 주로 학습자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태도의 발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

어 사회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뿐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가정과 학교의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습자와 관계를 맺는 의미 있는 타인(부모, 교사, 또래 친구 등)과의 교류 속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국어의 기능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운, 어휘를 넘어 텍스트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고,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하여 장르나 담화 영역별로 분화되고, 인지 이외에 정서 및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적 사례 연구나 횡단적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다.

2.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 내용 선정의 방향

1절의 논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내용의 범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의 내용

국어능력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국어사용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과의 교육 목표가 ‘국어사용 능력 신장’으로 기술된 것과 같다. 이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 기능 영역인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법·문학 능력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습자의 역동적 국어능력의 발달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어가 단순히 도구적인 목적에서 기능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태도의 발달에 기저를 이루며, 진공 상태가 아닌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텍스트’, ‘사고·태도’,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을 각각의 축으로 삼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국어능력이 발달해 나간다고 가정하였다.

우선, 언어·텍스트는 국어과 교육의 지식적 내용적 기반을 이루는 영역으로 학습자가 국어로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관여한다. <그림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는 음운·어휘·통사의 수준을 넘어 텍스트, 상호 텍스트의 단계로 발달해 나간다. 또한 언어와 텍스트에 기반한 표현과 이해의 방식은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미디어 발달을 고려하여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이나 미디어와 결합한 이해와 표현의 양상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포괄할 수 있다.

사고·태도는 언어와 사고의 불가분적인 본질적 관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어능력 발달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이때 교과 일 반적인 사고와 국어적 사고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서혁(2009)은 국어적 사고력을 ‘국어를 통한 의미 생성 능력’과 ‘의미 조직 능력’, 그리고 이를 실체화하는 ‘표현 능력’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의미를 생성하고 조직하며 표현하는 데 작용하는 언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만 우선 사고의 유형으로 알려진 사실, 이해, 분석, 비판, 창의적 사고를 틀로 삼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역시 국어능력 발달의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태도는 국어와 관련된 활동이나 경험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기의 역할을 하며 이는 국어과 교육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은 국어사용의 실제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습자들은 공동체 속에서 언어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데 이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부터 점차 발달되어 간다. 이후 제도 교육의 경험을 통해 점차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며 다양한 목적과 기능에 따른 공적 영역으로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학습자들은 적절한 의사소통의 예절과 규범, 문화적 능력을 수행하게 된다.

‘언어·텍스트’, ‘사고·태도’,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의 세 가지 축은 <그림 1>과 같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국어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발달과도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태도,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은 타 교과에서도 일반 개념과 특수 개념으로 결을 달리하며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는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과도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다. 이성영(2014)은 연구 동향을 통해 국어능력에 대한 기술이 ‘지식 → 기능 → 전략 → 능력’으로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국어능력은 맥락·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요구와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능력을 ‘언어·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관여하는 학습자의 ‘사고·태도’와 사회, 문화, 규범의 기저를 형성하는 ‘맥락·상호작용’의 관련 속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학습자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도 있지만 체계적 조사를 논의하려면 발달 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전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방향에서 연구의 전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는 학습자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 매체 이용,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의 맥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표 1>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가 각기 다른 연령에서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평균적인 변화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발달 단계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경향을 기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혜승 외(2016)에서는 학교 밖 문식활동에 대하여 초등 3학년 909명의 패널을 3년간 추적한 자료를 잠재 성장 모형으로 분석하면서 학교 밖 문식활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 조사는 학생 개인, 가족, 교사, 물리적 환경을 예측 변인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문식활동의 추이를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는 영역이나 장르별로 양적, 질적 변화를 보이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세부 능력의 변화 양상을 찾고 이를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영역별 국어능력의 발달은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성숙과 함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거나 지체하는 경향이 있음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영(2000)은 초2에서 언어능력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삼형 외(2005)는 초4, 중1, 중2, 고1에서 다른 학년보다 쓰기능력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고 보았다. 임천택(2017)은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들과 표기·표현의 ‘철자 쓰기’, ‘문장 부호’ 지표는 초등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띄어쓰기’와 ‘문법 표현’ 지표에서는 초등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유의한 발달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고, 김애화 외(2010)는 이야기 읽기 유창성이 초등 1, 2, 3학년에 급격히 발달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소 완만한 발달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국어능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학년이나 시기를 수렴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있

어서 이해와 표현 영역에서 또는 더 자세한 세부 영역이나 장르에 있어서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봉순(2000)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들의 국어능력 발달은 일정하게 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년 간의 발달에 전환점이나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또한 발달의 속도 변화 정도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전 학년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나 특정 행동이 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말하기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논증적 담화 표지가 출현한다거나 청자나 독자를 의식하는 표현, 양보나 반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초등 저학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발달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적인 능력이 잠정적으로 긍정정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태도와 흥미와 같은 정의적 능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달이 긍정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나 지체 양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제도 교육이나 환경적 요소가 인지적 영역의 발달을 지원해주는지 하나 오히려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자료는 각 영역의 균형 있는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되 표현 영역에 있어서 구어 자료의 수집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표 1>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하다시피 쓰기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많은데 비해 말하기 자료는 일부 학생들에 국한되어 수집 및 분석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쓰기 자료의 수집이 구어 담화의 수집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구어의 발달 추이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구어 담화 수집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독화의 상황 뿐 아니라 말하고 듣는 상호작용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떠한 구어적 이해와 표현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초기문식성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²⁾ 엄훈(2017)은 초등 1학년을 사실상 초기 아동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시켜 온 초기 문해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며 문해력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로 보고, 초등 저학년의 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한글 교육에서 초기 문해력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했다.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서 그림 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 수용표현어휘력, 이름대기 검사 등을 활용하여 어휘와 이해에 초점을 둔 발달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국어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참조하되 국어교육 연구의 특성을 살려 언어 사용의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영역별 활동에 기반한 연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학년에 따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기준이 되는 능력 발달의 지표를 마련하여 초기의 발달 지연이 지속되거나 누적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표현과 이해의 양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 도표,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비판하고 창작하는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 조사의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다문서 읽기, 복합문서 읽기, 전자 작문과 같이 달라진 리터러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이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매체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Foorman et al.(1998)은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 읽기 능력이 뒤쳐진 아동이 1학년이 끝날 때까지 뒤쳐질 확률은 88%이며, 3학년이 끝날 때 읽기 능력이 뒤쳐진 아동이 9학년이 끝날 때까지 뒤쳐질 확률은 74%라고 밝히고 있다(엄훈, 2017에서 재인용).

III.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조사 방법

국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종단연구는 2003년 한국 청소년 패널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관련 종단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국어능력 발달을 위한 종단 연구를 설계할 때도 기존에 시행된 종단 연구 조사 설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을 살펴보고 국어능력 발달 조사에 적합한 구체적 방법과 조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학습자, 교육 관련 종단 연구의 현황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교육과 관련한 종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교육개발원,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종원 외, 2016), 육아정책 연구원(김은설 외, 2016), 서울, 경기도 교육청(이정연 외, 2016) 등을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조사 시기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특정 시점에 실시된다.³⁾ 주로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지만 교사,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으로 설문조사의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교육 관련 종단 연구의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객관식 또는 일부 서술형을 도입한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집되는 표본의 크기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학습자의 표본 크기는 학년별로 1500명~7000명 정도이다. 또 OECD에서 시행하는 학습자 종단 연구의 표본 규모도 5000명 정도이고, IEA 연구

3) 5년 정도는 단기 종단 연구에 속한다. 노동 패널, 여성가족패널 등은 조사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매년 조사되고 있다.

〈표 2〉 학습자, 교육 관련 종단 연구 조사 현황

연구명(기관)	조사 시기와 기간	조사 대상과 규모	조사 항목 및 방법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한국교육개발원)	2005년~2010년 6년간 매년 반복 실시	중1-6908명 (표본학생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까지)	학생 성취도 검사(국어, 영어, 수학) 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담임교사의 평가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
	2011년~2019년 8년간 5회 실시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1회 실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한국교육개발원)	격년으로 실시	초5-7324명 (초중등교육 자료의 유용성 보완하기 위한 두 번째 패널)	수직연계를 위한 동등화 문항 개발 및 자료 수집 설계 이후 검사 실시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0년~2017년 7개년	초1-2342명 초4-2378명 중1-2351명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용(개별 면접), 보호자용(전화조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2013년~2017년	초6 학생-1446명 학부모-1426명	면접조사
한국 청소년 패널	2003년~2008년 6개년	초4-2844명 중2-3449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한국 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2008년~2027년 12개년 매년조사, 심층조사	신생아 가구 2150 대상	설문조사(어머니, 아버지, 아동, 위탁가구, 기관용, 가구원 대상)
서울 교육 종단연구 2010 (서울시교육청)	2010년~2018년 9년간 반복 조사	초4-5059명, 중1-4544명, 일반고1-5240명, 전문고1-1216명, 학부모, 교사: 319명(초) 571명(중), 일반계고(848명), 전문계고(177명)	(시작시점인 초4가 고2에 진학한 상태임-2017년 기준)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학생의 국영수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 성취도 검사(국어, 영어 각 35문항, 수학 30문항)
경기교육종단연구 2012 (경기도교육청)	2012년~2021년 10년간 반복 조사	초4-3561명 중1-4051명 고1-4242명 학부모-11845명 교사-해당 학년, 학교장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 성취도검사(국어(창의서술형), 영어, 수학 성취도 검사)

는 3000~4000명 정도임을 참고한다면, 국어능력 발달을 위한 연구 표본의
구성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표본의 분포가 사

회 문화적 계층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학생이나 학습 부진, 난독증 학생 등 국어교육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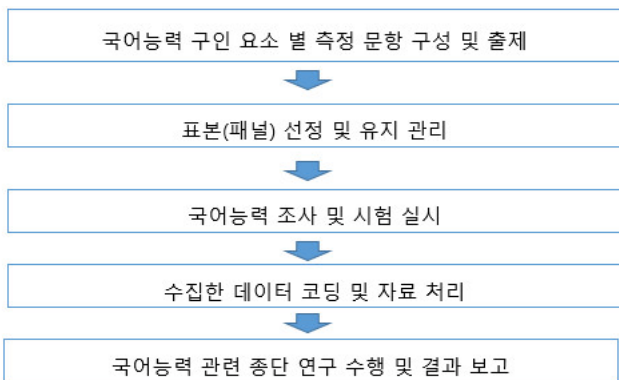
이미 실시된 학습자, 교육 관련 중단 연구에서도 국어능력 발달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중단연구는 ‘주당 평균 독서시간’, ‘월평균 독서량’, ‘방과 후 학교 및 사교육 참여(국어 논술관련)’, ‘ICT 활용’,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 기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경기교육 중단연구는 ‘국어수업 이해도’, ‘국어 사교육비’, ‘국어 논술 사교육 참여 비율’, ‘국어수업 집중도’, ‘국어학업성취도’, ‘국어기초능력 수준’ 등의 항목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 단답형 방식에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여 창의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학생작문인 만큼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들은 학교 수업이나 사교육, 성취도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학습자의 국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나 텍스트를 제공한 후 읽기 능력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검사 형태로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국어능력에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국어능력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어능력의 요소별로 학습자가 이해하거나 표현한 텍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방법보다 더욱 자세하고 정교한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2.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 방법 구성의 방향

1절의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를 계획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연구 조사의 단계를 <그림 2>



〈그림 2〉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 조사의 단계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각 내용요소가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에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연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수준에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2장에서 살펴본 국어능력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텍스트’, ‘사고·태도’,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검사도구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국어사용능력을 반영하는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검사 도구를 개발하거나 관련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옥현진(2014)은 국제 읽기발달능력 검사인 PIRLS(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의 문항 구성을 소개하였는데, 문항 형식은 선다형과 구성형이며, 읽기 목적은 문학적 경험, 정보의 습득과 활용으로, 인지 유형으로는 정보 확인, 추론, 해석·통합, 점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읽기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국어능력 발달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읽기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다형, 단답형 이외에도 논·서술형, 면접형 등의 문항이 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보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인 면담이나 대화, 발표 장면 녹화, 편지, 보고서, 설명문, 건의문, 논설문, 이야기 쓰기 등의 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각 문

항은 앞서 제시한 ‘언어·텍스트’, ‘사고·태도’,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의 3차원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문항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학년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매년 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을 경우 동등화를 위해 수직 척도를 개발하는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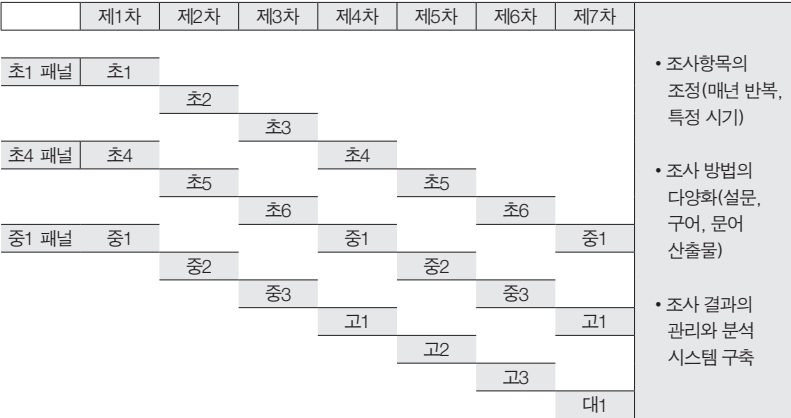
연구 표본을 선정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비용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종단 연구들이 대부분 전망적 패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종단연구에 소모되는 비용과 노력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연구 대상인 학습자의 범위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교육을 염두에 두어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학습자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이 이탈할 우려가 많아진다.⁴⁾ 특히 학교급간에 이동을 할 경우, 표본의 이탈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생층이어서 다른 연령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탈 가능성도 적지만 종단 연구를 설계할 경우 최대한 표본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후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가중치를 설정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초점 패널 집단을 2~3개로 나누어 관찰하게 되면 연구조사 시기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기에 따른 발달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사의 범위가 초등 저학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사 문항을 작성하거나 자료 수집을 할 경우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자료 수집 방법에 주

4) 실제로 서울교육종단연구(김성식 외, 2016: 10)는 초등 기준으로 2차년도(92%), 3차년도(85.6%), 4차년도(73.3%), 5차년도(70%), 6차년도(69.1%), 7차년도(63.4%)로 갈수록 원표본 유지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중단 연구의 경우에는 직접 응답 대상을 초등 4학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의 특성 상 저학년 학생의 직접 응답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초등 1학년부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이 응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부모가 대신 응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관찰에 의해 평가를 대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⁵⁾

이와 같은 유의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조사의 모형을 설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 조사 모형

이와 같은 조사 모형은 일반적인 패널 조사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다만 초점 패널 집단을 선정하거나 시작과 종료 시점, 기본 조사 항목과 특정 시기 조사 항목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다른 종단연구 설계와 차별화될 수 있다. 이 모형으로 자료가 수집되면 횡단 분석, 종단 비교 분석,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그림의 세로 방향에서 횡단 분석이 가능하다. 특정 시점에서

5) 아동패널의 경우 일부 문항은 학생이 모두 직접 응답한 반면, 주의집중과 사회적 위축 변인은 2~3학년 때는 부모가, 4학년부터는 학생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학년, 다른 학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의 가로 방향에서 특정 학년 학습자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대각선 방향에서 특정 학년이 어떤 성장과 발달을 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⁶⁾

국어능력 발달을 살펴볼 때 초1 패널을 설정한 이유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확인하고 점검해야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초등 4학년이 국어능력 발달의 변곡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3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7년에 걸쳐 3개의 패널을 둔다.⁷⁾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초1 패널은 중학교까지의 연계를, 초4 패널은 초, 중,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중1 패널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다.

패널 간에는 조사항목을 될 수 있는 한, 동일하게 유지하되 연구 진행에 따라 매년 반복해서 조사해야 하는 항목과 특정 시기에만 조사하고 이후에는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나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내용을 연구 진행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본을 선정하고 관리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실제 표본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조사 시기에 따라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설문 대상에 학부모와 교사, 학교 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저학년 학습자의 경우라면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학습자를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또한 시행 시기는 학기초, 학기중, 학기말 각각의 시기가 지나는

6) 선형혼합모델(Linear mixed-effects model)은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를 추정함과 동시에 개인 내 및 개인 간 변량을 구분하여 전체 집단의 평균과 더불어 해당 집단 내에서 개인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Bates 외, 2015)

7) 민병곤·박재현(2016)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대상을 PIAAC에서와 같이 16세부터 65세까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등 교육과 성인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소극적으로 초, 중등 교육과정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몇 시간 동안 며칠에 걸쳐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아동의 읽기와 수학 능력 발달을 측정하고자 실시되는 IPIPS (Intern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of Primary Schools)검사는 원래 지필식 검사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발전되었으며 이는 국제적 평가도구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을 위한 자료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집 및 분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언어 발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매체 활용이나 생산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데도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

신명선(2017)은 학습자의 문어능력 발달을 위한 학습자 말뭉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학교의 협조를 얻어 학습자 글쓰기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필요하며, 이는 말뭉치 수집 지침과 자료 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국어능력을 조사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필시험이 아닌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상황맥락을 보다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⁸⁾ 예를 들어, '00에 대해 설명하는 글, 혹은 논증하는 글을 쓰시오'라고 맥락에 대한 정보 없이 활동을 지시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말하게 한다든지, 쓰기 활동을 하게 하든지 보조적인 텍스트나 사진, 자료를 보고 토의하거나 특정 과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등의 이해와 표현이 통합

8) 김봉순(2000)은 쓰기자료를 모으기 위해 환경오염이라는 과제로 설명적인 글을 쓰도록 했고 임경순(2010)은 '어느 날이었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글쓰기를, 한선희(2001)는 '바람이 켜켜 부는 추운 날이었다'로 시작하는 이야기글 쓰기 등의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향후 과제 제시의 방법이 과제 맥락이나 설명을 보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력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류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정리하고 배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단 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에 들이는 노력 이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범주화하여 배열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초 자료의 성격을 지니는 데이터들은 적극적으로 공개되어 국어교육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자료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단계 추출법에 의해 표집된 자료의 경우에는 학교, 학년 등의 표집단위의 위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다층모델(multi-level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능력 발달 연구 조사의 내용이 복합자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가중치나 결측치에 대한 처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각 연차별로 가중치 데이터를 따로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개별 연구자가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조사표나 코드북을 공개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국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어능력의 발달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전반적인 능력과 더불어 세부적인 발달 양상은 더욱 정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각 영역별로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오고는 있지만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고 개별 연구자가 애써 모은 자료는 공유되어 확산되거나 신뢰도를 보장하는 등의 부분에서 어

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단 연구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는 학회나 연구소와 같은 학술공동체 차원에서 제안하고 기획되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초가 되는 대규모의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연구의 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습자와 관련된 중단 연구 현황조사를 통해 학습자를 둘러싼 학습 환경, 그리고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인과적인 관계 규명, 장기적인 추이에 대한 전망,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연구의 초점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국어교육의 대상과 내용인 학습자와, 국어능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 학습자의 국어능력이라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상을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가 세상을 보여주고 이끌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중단 연구는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 학부모, 학교 관계자, 정부 부처 등 제도 교육을 둘러싼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혹은 교과·비교과 활동을 선택하고 구성할 일들이 많은데 이때마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국어능력과 관련된 자료는 목적에 따라 심층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에 응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8. 1. 19. 투고되었으며, 2018. 2.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3.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가은아(2010), 「설명문 쓰기 능력 발달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139-168.
- 강리나(2001), 「시 쓰기 능력 발달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이은(2015), 「초등학생의 정보 텍스트 독해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봉순(1999), 「설명적 텍스트 구조의 이해력 발달 연구: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읽기수업방법』, 초등교육학회(편), 서울: 박이정.
-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 초·중고 11개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02, 27~85.
- 김성식·김경성·김준엽·김종훈·박상현(2016), 『서울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애화·박성희·김주현(2010), 초등학생의 읽기 유창성 특성 연구: 읽기유창성 발달 패턴 및 오류 유형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5, 43-55.
- 김양분·남궁지영·박영호·김미숙·김위정(2016), 『한국교육종단연구2013(III):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자성·김정미(2011), 「설명과 경험이야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구문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540-558.
- 김정선·장경희(2004), 「초등학생 대화에서 관찰되는 질문의 기능과 발달 양상」, 『국어교육』 115, 157-184.
- 문지은·권도하(2015), 「학령기 아동의 학년별 말 속도 및 비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4(1), 113~121.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병곤·박재현(2015), 「고등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 비교 연구」, 『국어교육연구』 35, 283-320.
- 박영민·최숙기(2009),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새국어교육』 82, 95-125.
- 박태호·강병륜·임천택·이영숙(2005), 「국어 표현에 대한 초등학생의 쓰기 특성 및 발달 고찰」, 『국어교육연구』 23, 273-299.
- 서영진(2011), 「쓰기 교육 내용 조직의 위계성 연구」, 『새국어교육』 87, 59-83.
- 서혁(1998), 「초등학생의 텍스트성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일기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8, 315-349.
- 서혁(2009), 「언어·문학 영재성과 국어 능력」, 『교과교육학연구』 13 (1), 213-231.
- 신문자·이희란(2017), 「초등학교 1-4학년 일기 쓰기에 나타난 문해적 어휘 발달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1), 627-644.
- 신현숙(2008), 「분석적 평가에 의한 논증글 쓰기 수행의 발달적 차이」, 『교육학연구』 46(1),

- 안정아·남경완(2012),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양태 표현 연구: 서술 부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9, 319-344.
- 안정아·남경완(2015),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에 나타나는 제목의 특성」, 『어문논집』 75(1), 79-108.
- 엄훈(201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발달 양상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6, 191-217.
- 엄훈(2017), 「초기 문해력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국어교육』 63, 83-109.
- 오택환(2009), 「고등학생 필자의 쓰기 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125-148.
- 옥현진(2014), 「국제 문식성 평가 분석을 통한 문식성 교육 시사점 탐색: PIRLS, PISA, PIACC 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9, 73-103.
- 유동엽(2009), 「초등학교 1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1, 134-181.
- 유동엽(2011), 「초등학교 2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5, 120-151.
- 유동엽(2012), 「초등학교 3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8, 183-209.
- 유동엽(2013), 「초등학교 4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107-140.
- 유동엽(2014), 「초등학교 5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3, 167-204.
- 윤준채(2009), 「초등학생 필자의 쓰기 태도 발달 연구」, 『작문연구』 8, 277-297.
- 이삼형·주영미(2005), 「쓰기 능력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18, 127-148.
- 이선영(2011), 「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영(2000), 「글쓰기 능력의 발달 단계 연구: 초등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6, 27-50.
- 이성영(2014), 「국어능력의 개념과 성격: 감으로서의 국어능력」, 『한국초등국어교육』 56, 89-116.
- 이순영(2016), 「초등학교 1학년의 설명문 쓰기 능력 연구-취학 첫 학기 아동의 초기 문식성 발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평가연구』 19(2), 107-131.
- 이순영(2017),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설명글과 이야기글 쓰기 양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62, 67-94.
- 이은희(2002), 「글쓰기 능력의 지표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5, 375-404.
- 이재분·현주·김미숙·류덕엽(2001), 『초등학생의 언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RR2001-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연·임현정·김병준·강홍수·김혁동(2016), 『경기교육중단연구 4차년도 기초분석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2016),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Ⅶ』,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란(2015), 「초등학교 1-4학년 한 학생의 일기문 분석 중단연구: 구문복잡성과 담 화 형식

- 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503-518.
- 임경순(2009), 「한국 중학생의 서사 표현력 발달 연구」, 『문학치료연구』 10, 7-52.
- 임경순(2010), 「한국 초·중등 학생의 서사 표현력 발달 연구」, 『작문연구』 10, 227-271.
- 임천택(2005), 「초등학생의 설명 텍스트에 나타난 쓰기 발달 특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32, 123-151.
- 임천택(2017),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의 쓰기 발달 비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485-508.
- 신명선(2017), 「국어 학습자 문어능력 발달 맞춤형 구축을 위한 서설」,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1), 7-41.
- 장은섭(2014), 「초, 중, 고등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99, 173-208.
- 전유경·김화수(2016), 「내러티브 쓰기에 나타난 청소년의 어휘 산출과 구문복잡성」, 『언어치료 연구』 25(1), 111-121.
- 정혜승·김정자·정현선·손원숙·김중윤·민병곤(2016), 「초등학생의 학교 밖 문식 활동 빈도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요인 탐색」, 『국어교육』 153, 171-209.
- 최인자(2004), 「서사표현능력 발달의 성별 패턴 비교연구- 초·중등학생의 서사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5, 323-353.
- 황진애·김영태·이주연(2007), 「학령기 아동의 읽기 이해력 발달: 중심내용 파악, 참조 및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2(3), 412-428.
- Bates, D., Maechler, M., Bolker, B., & Walker, S. (2015), "Fitting linear mixed-effects models using lme4",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67(1), 1-48.
- Foorman, B. R., Francis, D. J., Fletcher, J. M., & Schatschneider, C. (1998), "The role of instruction in learning to read: Preventing reading failure in at-risk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1), 37-55.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를 위한 시론

이선영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교육 영역에서의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단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의 내용으로 ‘언어·텍스트’, ‘사고·태도’, ‘맥락·사회적 상호작용’의 세 축을 기준으로 국어능력이 발달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맥락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 연구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 대해 각 영역별 세부 능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영역의 균형 있는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되 표현 영역에 있어서 구어 자료의 수집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초기 문식성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표현과 이해의 양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국어능력 발달을 위한 연구의 방법을 설계할 때에는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기존의 종단 연구를 참고하여 중다전망적 패널 설계를 하되 연구 방법에 있어서 설문조사 이외의 면접, 관찰, 녹화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고, 영역 통합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언어사용의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학습자, 국어능력 발달, 초기 문식성, 종단연구, 중다전망적 패널 설계

ABSTRACT

A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about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of Learners

Lee Sunyoung

The study of learners'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is a core are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ontents and method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based on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of learners. Some points to consider when selecting the contents of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of learner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research needs to be encompass not only the learner but also the learning context, including teachers, parents, school, and the community. Second, the rapid change point of language development needs to be explicated. Third, based on the balanced data collection in each area, learners' oral data should be complemented. Fourth, indicators related to early literacy must be developed and strengthened. Fifth,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so that the contents reflect the new ways of communication, expressions, and understanding of learners.

Therefore, a 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 and various survey methods, such as interviewing, observation, and recoding need to be used when designing a research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of a learner.

KEYWORDS Learner,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Longitudinal Research, 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